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12 | Vol. 235호

#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150\*220

표지 \_ 국2절 미색모조 220

내지 \_ 국전 미색모조 100

중철 36p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 제25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10월 21일부터 제25회 백고좌법회 49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회향일인 12월 8일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제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 도 육재 12월 1일(음. 10월 29일)  
막재 12월 8일(음. 11월 6일)

※ 재일은 매주 일요일입니다.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홀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 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매 재일마다 회심곡, 바라춤, 살풀이, 음성공양하는 스님들을 특별히 모십니다.



##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12

Vol. 235호



- 04 깨침의 향기  
삼독의 뿌리를 끊으면  
깨달음이 보인다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8 비술산방  
계사년(癸巳年)을 보내며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안다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영원히 불법(佛法)을 밝히는 석등(石燈) · 조명래
- 18 명찰순례  
호국과 차문화의 성지 전남 해남 대흥사
- 22 법회이야기 | 동지법회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절기, 동지
- 24 법왕사소식
- 27 법왕사게시판
- 29 해오름소식
- 30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7(서기 2013)년 12월 01일 발행 | 통권 235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강선옥, 고재일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삼독의 뿌리를 끊으면 깨달음이 보인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고통의 원인이 집착  
또는 갈애이며 고통을  
소멸시키는 원인  
또는 수단은 도라는  
연기관계를 밝힌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사성제를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四聖諦)는 '네 가지 높은 깨우침' 또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란 뜻으로 고성제(苦聖諦), 집성제(集聖諦), 멸성제(滅聖諦), 도성제(道聖諦)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간단히 말하면 고집멸도(苦集滅道)가 되는 것입니다.

고성제는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생로병사(生老病死),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성제란 괴로움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말합니다. 괴로움은 인간의 내면적인 번뇌인 무명(無明)과 갈애(渴愛)에서 일어납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꿰뚫어 보는 깨달음의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하며, 갈애란 오온(五蘊)에 대한 집착심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명과 갈애는 탐욕, 분노와 두려움, 무명과 어리석음의 삼독심(三毒心)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삼독을 떠나지 않고서는 무명과 갈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멸성제란 괴로움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인 무명과 갈애가 모두 없어진 무고안락(無苦安樂)한 열반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도성제란 탐욕, 진에, 치암의 삼독심을 없애고 무명과 갈애에서 벗어나 멸성제에 이르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八正道)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성제에서, 집성제는 고성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도성제는 멸성제의 원인이 되거나 인연이 됩니다. 즉 고통의 원인이 집착 또는 갈

애이며 고통을 소멸시키는 원인 또는 수단은 도라는 연기관계를 밝힌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멸성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명과 갈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명과 갈애는 삼독심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일러 삼독심이라고 할까요?

삼독심이란 탐(貪), 진(瞋), 치(癡)의 세 가지 번뇌를 말하는 것으로 삼화(三火), 삼구(三垢)라고도 하며 중생을 해롭게 하는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삼불선근(三不善根)이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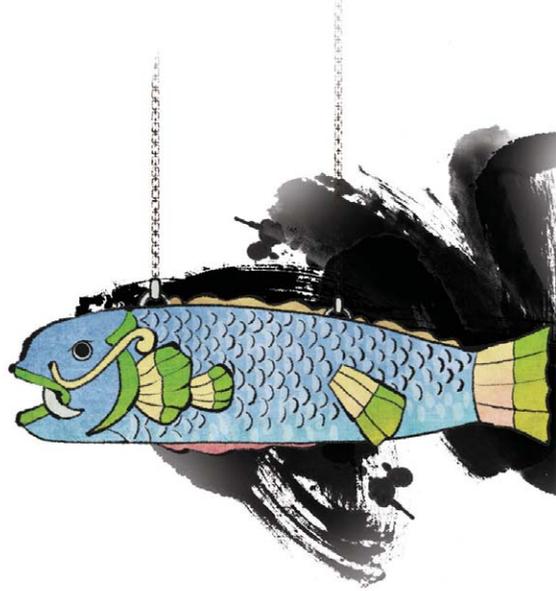
탐은 탐욕(貪慾) 또는 탐애(貪愛)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탐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모든 번뇌(煩惱)를 일으키는 근본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진은 진에 또는 노(怒)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과 대상을 미워하고 성내는 것을 말합니다. 치는 우치(愚癡)라고도 하는데, 심소(心所) 즉 마음에 소속되어 일어나는 심리의 하나로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달마대사가 이르기를 “무명인 마음에는 팔만 사천의 번뇌와 정욕(情慾)이 있어 그 악한 것들은 마치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무량무변(無量無邊)하나 모두가 삼독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삼독이라 함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말한다. 이 삼독심에는 본래부터 모든 악한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마치 큰

나무가 뿌리는 하나이나 거기에서 생긴 가지와 잎이 무수히 많은 것과 같이 삼독의 뿌리는 하나이지만 그 속에서 지어내는 모든 악업은 앞의 나무보다 백천억만배나 더하여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달마대사가 이르기를 “그 물줄기의 근원을 끊으면 모든 강물의 흐름이 다 쉬게 되는 것처럼, 해탈을 구하는 사람도 삼독을 돌이켜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이루고 욕적을 돌이켜 육바라밀을 이루면 자연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탐, 진, 치 삼독심 가운데 제일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어리석음, 즉 우치(愚癡)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고, 지혜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 불자들은 어리석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참된 수행자가 되어 지혜와 선정(禪定)으로 마음을 밝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번뇌의 기운을 끊을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번뇌망상(煩惱妄想)을 다스려 해탈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 중에 어리석음보다 더한 번뇌가 없고, 그물 중에는 어리석음보다 더 촘촘한 그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조가 자기가 죽을 꼴을 낸다’는 옛말처럼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에서 속기 쉽습니다. 냄새 맡는 것은 코한테 속기 쉽고, 먹는 것은 입한테 속기 쉽고, 소리 듣는 것은 귀한테 속기 쉽고 마음은 몸한테 속기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속고도 속은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착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추한 일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미혹한 사람은 겉모양에 집착해 그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눈여티가 든 것은 보아도 자기 눈에 들보 든 것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리석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참된 수행자가 되어 지혜와 선정(禪定)으로 마음을 밝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삼독심을 끊어 영원히 녹여 없애고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 등 우리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도적들과 같은 욕적(六賊)이 드나들던 문을 닫아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 순식간에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려야 삼독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무명의 뿌리는 삼독심이기 때문입니다.

# 계사년(癸巳年)을 보내며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올해 법왕사에서 여러 가지 불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불보살님의 가피와 법왕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

매년 세모(歲暮)에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라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벽찬 희망으로 맞이한 새해이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다 문득 다가온 연말을 맞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생각에 절로 그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올해 계사년(癸巳年)도 어김없이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습니다. 겉보기는 평온했던 한 해 같지만 여러 모로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보면 주변 강대국들의 발호와 그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처지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늘 압박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은 언제나 우리의 운



명을 옥죄는 굴레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의 각종 조치들은 우리의 선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경제상황 또한 건국 이래 최악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과거 외환위기를 비롯해 두어 차례 큰 위기를 넘긴 바 있지만 현재는 만성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 가계는 늘 쪼들리고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정치는 또 어떠했습니까?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야당과 대결국면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권세력으로서의 아량이 없고, 소수당으로 전략한 야당은 투표로 심판받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오로지 투쟁 일변도로 치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살림살이에다 나라 안팎으로 산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은 국민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법왕사에서는 올 한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24, 25회 백고좌법회를 무난하게 회향했습니다. 매년 하는 법회지만 100일 동안 끊임없이 덕 높은 고승대덕을 모시고 법석을 여는 것 자체가 보통의 원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대작불사입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가 지금까지 25회나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 현대 불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자부합니다. 내년부터는 백고좌법회를 연간 3회, 연속해서 봉행하려

고 합니다. 연간 300일이면 명절이나 휴가, 초하루, 보름 등을 제외하면 연중무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전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미 역사와 전통을 인정받은 우리 백고좌법회를 내년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법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법왕사가 불교복지를 표방하고 시작한 해오름요양원이 조기에 정원을 채움으로써 그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그래서 제2해오름요양원 건립을 위한 대작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인 만큼 지속적으로 불교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2요양원 건립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조만간 법왕사와 멀지 않은 곳에 부지를 마련하여 넉넉한 공간과 충분한 시설을 갖춘 요양원을 건립하여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부모 이웃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법왕사에서 여러 가지 불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회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불보살님의 가피와 법왕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또한 더 큰 원력으로 부처님 일들을 펼쳐나갈 각오입니다. 이 또한 불보살님의 가피와 법왕가족의 뜨거운 성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12월 한달 동안 남아 있는 모든 법회, 모든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안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오나니  
이것이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  
나는 잔을 들고 그대 바라보며 한숨 짓노라.”  
〈예이츠의 '술의 노래'〉

사람이 숨 한번 들이쉬는 사이에 하늘의 해는 30만리를 가고, 그 빛(광속)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지구의 7바퀴 반을 휘감아 돈다. 하루에 86,400번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평균 수명으로 28,700일(80년)을 사는 동안, 사람은 단 한 순간도 쉴 새 없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 일 아니면 저 일, 저 일 아니면 이 일로 분주하게 옮겨 다니며 극심한 정신노역(勞役)에 시달린다.

인간이 꿈꾸고 바라는 백세 수명인 3만6천 일을 두고 세밀히 살펴보자. 일년을 춘(春),

하(夏), 추(秋), 동(冬) 사계절로 나누면 4백번의 계절이 거듭 바뀌고 4백의 계절을 각기 3개월 단위로 나누면 1천2백번이나 달이 차 만월이 되어 서산으로 기운다.

이것을 날짜로 따지면 백년은 곧 36,000 일이라, 그 중에 봄 9,000일과 여름 9,000일, 가을 9,000일, 그리고 겨울이 9,000일이다. 1백세를 사는 동안 하루에 세 번씩 밥을 먹을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25,750차례의 밥을 먹는 것이 되고, 이를 합

산하면 103,000번이나 된다. 이 수치는 아기에 때 밥 대신 젓을 먹는 것, 일 때문에 바빠서 먹지 못하는 것하며, 혹은 질병이나 속상해서 또는 가난 때문에 끼니를 잊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니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덜 먹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100세를 사는 동안 잠자는 시간을 하루 평균 8시간 잡더라도 100년 중 1/3을 차지하는 33년을 잠을 자는데 보낸다.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시절이 10여년이고 이후 새벽부터 밤늦도록 공부하느라 16년의 세월이 정신없이 훌쩍 지나간다. 이제는 일자리 구하고 좋은 삶든 관습에 따라 결혼도 해야 한다.

## 인간 백세 중 행복은 잠시

남남이 만나 피와 살을 섞으며 아이 낳고 사는 '무거운 집, 결혼'은 곧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이 주어지게 되고 배우자와 고락을 함께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이 결국 그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식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다시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우랴, 공부시키랴, 결혼시키며 살림 내주랴, 탈 없기를 바라며 마음 쓰랴, 행여 탈 날까 걱정, 근심하랴, 커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지속적인 보살핌과 뒷바라지에 맘 편할 날 그리 많이 않다.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약한 몸과 잦은 병고를 치르면서 서러운 늙음을 시름으로 달래야 하는 인간 삶, 100세는 이래저래 다 떼고

제하다 보면 좋고 즐겁고 흥겨운, 살만 하다는 행복한 날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

## 인간의 모든 감각은 마음으로 느껴

우리 눈은 그저 동공(瞳孔)의 눈동자로서 검은색의 사물을 대하면 검은 빛깔을 나타내고 붉은 색의 사물을 대하면 붉은 빛깔을 나타내며 흰색을 대하면 흰 빛깔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험 삼아 잠시 두 눈을 감아보자.

“.....”

자, 무엇이 보이는가? 아마도 '어둠만이 있을 뿐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음을, 뜬 눈으로 보듯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는 어둠은 육안(肉眼)의 눈으로 보는 어둠이 아닌 '그곳에 마음이 있음'으로서 비로소 보게 되는 '어둠' 이기에 이로 미루어 볼 때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은 분명코 마음이지 귀와 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눈은 눈동자가 지닌 색채 있는 렌즈로써 각기 다른 사물마다 초점(焦點)을 맞추고 귀는 소리의 울림을 전달하는 몸의 기관일 뿐, 흔히 알고 말하는 '보고 들어서 안다'고 함은 눈과 귀의 영역을 벗어난 마음이 가진 인식체계인 식(識)의 기능에 속한다. 책을 볼 때도 눈이 하는 역할은 밝은 빛으로 환히 비추듯이, 쓰인 문자에 동공을 갖다 비출 따름

이고, 읽고 이해하며 아는 기능은 마음으로 한다. 이성을 마주하여 호감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  
**팔정도 중 '바른 견해'가 최우선**

눈은 알아챌의 인식기능이 아닌 만큼 대상을 두고 '아름답다', '추하다'고 하는 분별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애뜻한 감정의 그리움에서 '한 눈에 반해버렸다', '눈에 들어서 폭 빠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겨서 훌쩍 반해버렸다', '마음에 들어서 정신없이 폭 빠졌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히 맞는 표현이다.

이처럼 실체에 접근한 면밀한 관찰에 의해 사물이 지닌 본질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실상(實相)과는 달리, 이미 그렇게 배우고 익힌 탓에 잘못 인식하며 아는 바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예는 어디에서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예이츠가 청춘을 찬미한 그의 시(詩) '술의 노래'에서 '술은 입으로 오고 사랑은 눈으로 오나니…….'라고 읊었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 애송하던 구절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도무지 모르는, 그저 시적 감상에서 읊은 것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취하는 술은 목구멍을 통해 뱃속'으로 부어넣는 것으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인 기분에 따라 마시기에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하는 게 술이니 마신 만큼 취하는

건 마음(정신)이지 '거치는 과정의 입'이 아니다. 그의 말대로 '술이 입으로 온다'고 해서 취한다면 마땅히 입이 먼저 취하고 목구멍이 우선 취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니 술 마시고 취하는 건 어디까지나 마음이지 입과 목구멍은 아닌 것이다.

또한 '사랑은 눈으로 온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모르는 소리다. 남녀간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감정의 유희(遊戯), 사랑도 마찬가지로 눈이 아닌 마음에 들으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애착하는 그 마음(정)이 식으면 그토록 좋아라 하는 사랑도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에서 떠나가면 그만인 것이다.

팔정도 항목에서 서열이 가지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바른 견해'의 '정견(正見)'을 서두에 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치우침 없이 바르게 보는 지혜로운 견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첫 단추를 잘 꿰매어야만이 전



체가 어그러지지 않음과도 같이, 수행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바르게 보고 아는 '정견의 초석' 위에 점진적이지 동시에 닦음을 다져가는 정사, 정어, 정업 등의 순으로 둔 것은, 온갖 욕망에 젖어 객관(客觀)에 끄달려 사는 중생의 소견으로는 사물을 왜곡치 않고 본래 모습 그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과, 그리고 정도(正道)에 입각한 실천적 수행이 따르지 않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아는 앎의 지식이나 머릿속에 채우는 일반적 학업·학습이 가지는 방식에 의존하여 사물이 참모습(실제) 그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정지(正知)·정견(正見)에 의한 슬기의 지혜가 심성(心性)에 깃들어 푸른 싹을 틔우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임**

표면에 나타내는 현상 이면(裏面)에 드리워진 실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전해지는 옛 이야기가 있다.

조선왕조를 창업한 이성계는 어느 날 왕사(王師)인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

“대사, 오늘 이 자리만큼은 군주와 왕사의 신분일랑 다 잊고서 허물없이 즐길 것이니 그리 아시고 대사는 마음을 푼 터놓고 어디 한번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보시구려!”

“하하하--- 전하께서 먼저 하시지요.”  
 “허허허--- 좋소이다. 그럼 내 먼저 하리다.”

“대사의 얼굴은 꼭 돼지처럼 생겼소이다.”  
 “임금님 용안은 꼭 부처님 같이 거룩하십니다, 그러.”

“어허, 왜 이리시오. 대사, 오늘 만큼은 서로 격식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즐기자고 하질 않았소이까?”

“으하하하-- 누가 아니랍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지요.”

“허허허--- 그렇소이까. 생각하면 참으로 그렇겠소이다. 대사의 법력엔 과인이 도무지 당해낼 재주가 없구려.”

‘제 눈에 안경’이라. 보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는 법이다. 우리가 사물을 두고 보며 대할 때, 과연 얼마나 실체에 접근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느냐는 통찰력(洞察力: 사물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환하게 내다보는 직관)이 곧 '바른 견해, 정견의 뜻'이다.

미세하고 복잡하기가 티끌 먼지와 같은 것 이어서 '티끌 번뇌'라고 하는 불타들이 치성한 번뇌는, 생각보다 훨씬 우리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1) 경계를 대하여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 심(心), 의(意), 식(識)으로 나누어지는 마음의 작용은 6식(識), 7식, 8식, 9식의 구별이 있다.



## 영원히 불법(佛法)을 밝히는 석등(石燈)

▲ 법주사 쌍사자 석등 국보 제5호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 자등명 · 법등명

등은 범어로 dipa라고 하는데 ‘빛난다’는 의미이다. 불경에 석등(石燈)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빛(광명), 즉 등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히는 것으로 등지인연경(燈指

因緣經) · 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 · 조상경 · 현우경 등에서 설하고 있다.

석등은 ‘너희들은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는 자등명(自燈明) · 법등명(法燈明)을 상징한다.

문무왕 19년(679년)에 사천왕사에 목탑이 쌍탑으로 세워졌는데, 이는 탑 중심의 사원 건축이 불상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탑을 중심으로 구성해 왔던 사원건축에 있어 비록 불상 중심으로 신행생활이 변화되면서 쌍탑이 세워졌지만, 전통적인 관습을 도외시할 수 없다보니 그 자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석등’을 세우게 된 것이다.

석등은 인도나 중국,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독창적인 불교 문화로서 그 원형은 익산 미륵사지에 찾아볼 수 있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600~641년) 때 세워진 사찰로서 《가람배치도》와 같이 각각의 금당과 탑 사이에 석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종교적 의미보다는 지금의 가로등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 쌍탑 가람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완전한 형태의 석등이 남아있는 사찰은 불국사이다. 불국사의 중심에 위치한 석등을 기준으로 하여 원을 그리면 대웅전의 중심과 석가탑, 그리고 다보탑의 중심을 통과하여 명실상부하게 ‘자등명 · 법등명’을 상징하고 있다.

### 석등의 시대적 변천

우리나라에서 탑 중심의 신행생활이 불상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금당의 여간(御間)을 밝히고자 쌍탑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석등이 만들어졌다. 쌍탑과 석등의 배치는 통일신라시대 하대 사찰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만큼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통일신라 하대로 가면서 사찰건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레 탑의 크기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쌍탑을 건립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1기의 탑을 금당 앞에 세우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탑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석등은 큰스님들의 자리를 모신 부도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고려 후기에는 왕릉에 석등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석등은 왕릉과 사대부 묘역의 구성요소로 자리하게 되었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장명등(長明燈)’이라 불렸다.

### 석등의 구조

부처나 보살은 연꽃 위에 앉는다. 이처럼 부처나 보살이 앉는 연화의 대좌를 연화좌(蓮華坐)라 한다. 연꽃은 진흙 속에 나서도 물들지 않는 덕이 있으므로 불보살이 앉는 자리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석등은 연화좌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法燈明)’을 상징하는 불을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석등의 구조는 화사석을 떠받치고 있는 대좌부와 이를 덮고 있는 지붕돌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좌부(臺座部)**

석등의 대좌부는 불상의 대좌나 부도의 대좌와 같이 연화좌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하대석, 중대석(간주석), 상대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석등은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팔엽(八葉)의 연꽃잎이 땅으로 향하고 있는 하대석을 얹고 그 위에 팔각기둥의 중대석을 세우고, 다시 팔엽의 연꽃잎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 상대석을 얹어 연화좌를 만들고, 그 위에 화사석과 지붕돌은 얹고 정상부에는 보주 등으로 장식하고 있다.

하대석의 연꽃잎은 땅으로 향하고 있어 복련(覆蓮)이라 하며, 상대석의 연꽃잎은 하늘로 향하고 있어 양련(仰蓮)이라 하고 팔각기둥의 중대석은 팔정도(八正道)를 상징한다. 여기서 복련은 우리 중생을 의미하며,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양련 즉, 부처가 앉은 자리인 연화대로 올라가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석등이다.

대체로 지대석은 하대석의 복련과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사각형, 팔각형, 16각형으로 구분한다. 사각형 지대석은 불국사 대웅전 앞의 석등과 부석사 무

량수전 앞의 석등 등이 대표적이며, 팔각형 지대석은 법주사 사천왕상 석등에서, 16각형 지대석은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대석(간주석)은 불상대좌나 부도의 중대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대석과 상대석을 연결하는 부재로 팔각기둥이 기본형이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고복형(鼓復型), 쌍사자형(雙獅子型), 단사자형(單獅子型), 인물상형(人物像型), 육각형, 사각형 등으로 변화되었다.

상대석은 양련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로 하대석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과 같이 상·하대석의 연판무늬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원원사지 석등이나 보림사 석등과 같이 하대석은 복판(複版)의 복련이고, 상대석은 단판(單版)의 양련으로 된 경우도 있다.

**화사석**

화사석은 석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팔각형으로 4면에 화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본형으로 익산 미륵사지 석등과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이 그 대표적이다. 팔각형의 화사부에 화창이 개설된 4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사천왕상 비롯한 보살상을 장식하기도 하는데 부석사 석등, 법주사 사천왕상 석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① 보물 제15호 법주사 사천왕상 석등 ② 국보 제17호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개선사지 석등과 같이 팔각형 전면에 화창을 개설한 경우도 있다.

석등의 화사석에 있는 창 의 가장자리에 보면 쇠기를 박았던 자국이 남아있는데 나무 창틀을 설치했던 흔적이다. 나무로 화창(火窓)에 맞는 창틀을 짜고 나무못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킨 다음, 기름을 먹인 창호지나 얇은 천을 발라 불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쪽의 창은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저녁에는 등불을 밝히고 아침에 끄도록 하였다. 석등이 높은 경우에는 남원 실상사 석등이나 화엄사 석등처럼 층층다

리(덧돌)를 만들어 오르고 내리기가 쉽도록 하였다.

**지붕돌**

지붕돌은 크게 지붕돌과 보주로 구분된다. 석등의 지붕돌은 다보탑의 팔각지붕의 모양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석등의 지붕돌은 뒷날 부도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지붕돌은 화사석의 모양에 따라 8각, 6각, 4각으로 변화되었다.

## 호국과 차문화의 성지 전남 해남 대흥사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두륜산 자락에 위치한 대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22교구의 본사로 호국도량과 차문화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두륜산을 대둔산이라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원래 사찰명은 대둔사였으나, 다시 대흥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대흥사의 창건시점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하지만 사찰에 전해지는 여러 유물과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통일신라 말경에 창건된 고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년고찰임에도 불구하고 대흥사의 위상이 크게 부각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이다.

임진왜란 때 승군을 조직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서산대사는, 대흥사를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이며 만년동안 흐트러지지 않을 곳”이라 하여 자신의 의발(衣鉢)을 이곳에 전하도록 당부하였다. 1604년(선조 37) 서산대사의 의발이 간수되는 이때부터 승유역불의 정책 속에서도 13분의 대종사(大宗師)와 13분의 대강사(大講師)를 배출하는 등 선교양종(禪敎兩宗)의 대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대흥사는 좀 특이한 가람 배치를 보이고 있다. 당우들은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당우들은 일반적인 가람배치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북원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침계루, 백설당 등이 있다. 남원에는 천불전을 중심으로 용화당, 봉향각, 가허루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남원 뒤편에는 사명대사의 사당인 표충사 구역과 대광명전 구역이 있다.

북원에 있는 응진전 앞 삼층석탑은 이 절의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물 제3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

라 자장스님이 중국에서 가져온 석가여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라 한다. 대륜산 정상 부근에 세워진 대흥사북미륵암삼층석탑(보물 제301호)과 함께 통일신라의 석탑양식이 서남단 지방에까지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석탑이다.

해탈문을 지나 오른쪽 길로 오르면 남원 구역의 가허루가 보이는데, 그 안쪽 중앙에 천불전이 자리하고 있다. 천불전에 있는 천불(千佛)에는 이런 조성 설화가 있다.

초의선사의 스승인 완호대사가 1813년(순조 13)에 천불전을 증건한 뒤 경주의 옥석(玉石)으로 천불을 조각하게 했다. 열명의 조각사가 6년에 걸쳐 천불을 완성하자, 모두 3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울산과 부산 앞바다를 지나 대흥사를 향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척의 배가 울산진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일본 장기현까지 밀려가게 되었다.

배를 발견한 일본인들은 그 속에서 300여 개의 옥불(玉佛)을 발견하고, 서둘러 이를 봉안할 절을 짓기로 의논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불상들이 이들의 꿈에 나타나 “우리는 조선국 해남 대둔사로 가는 중이니 이곳에 봉안해서는 안 된다”고 현몽하자, 하는 수 없이 해남으로 돌려보내면서 불상 밑바닥에 모두 ‘日’ 자를 새겨 보냈다고 한다.

남원의 담장을 끼고 무염지 옆을 지나 왼쪽으로 돌면 표충사 구역이다. 표충사 구역에는 의중당과 표충사, 조사전, 표충비각 등이 있다. 표충사(表忠祠)는 서산대사의 위국



1



2

1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길에 써서 붙였다는 '무량수각' 편액 2 대흥사 입구 부도전

충정을 기리고 그의 은덕을 추모하기 위해 1669년(현종 10)에 건립되었다. 절에서는 흔하지 않은 유교형식의 사당으로, 서산대사를 중심으로, 사명당 유정, 뇌묵당 처영스님의 화상을 봉안하고 있다. 유물전시관에는 서산대사의 가사와 발우, 친필선시, 신발, 선조가 내린 교지 등 유물과 정조가 내린 금병풍 등이 보관돼 있다.

표충사에 스며있는 호국정신뿐만 아니라 대흥사에 있는 많은 문화재는 대흥사의 높은 사격(寺格)과 유구한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미륵암 암벽에 조각된 고려시대의 북미륵암아여래좌상(北彌勒庵磨崖如來坐像)은 국보 제308호이다.

대흥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조선 후기의 대신사이자 다도를 정립하신 초의스님이다. 차와 함께 청빈한 수행정진으로 인해 초의스님은 차성으로 불려지고 있다. 초의스님의 사상은 선(禪)사상과 다선일여(茶禪一如)사상으로 집약된다. 특히 초의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이었으며 다산 정약용 등과의 폭넓은 교류를 했으며 추사 김정희와는 각별한 사이였다고 한다. 초의스님은 39세 때인 1824년(순조 24) 대흥사 동쪽 계곡에 일지암을 짓고, 40여 년을 홀로 정진하다 1866년에 세수 81세, 법랍 65세로 입적하셨다.

대흥사에는 서예인들의 발길이 잦다. 산세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동국진체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원교(員嶠) 이광사(1705~1777)가 쓴 대웅보전(大雄寶殿)의 편액과 침계루

란 글씨를 보기 위함이다. 또 백설당에 걸린 추사의 '무량수각' 편액도 명필로 손꼽힌다. 표충사는 정조대왕의 친필이다.

대웅보전 편액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서려있다. 추사가 제주도 귀양길에 대흥사의 현판글씨를 보고 “조선의 글씨를 다 망쳐 놓은 원교 이광사가 쓴 현판을 걸어놓았다”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그의 현판을 떼어내고 추사의 글씨를 달았다고 한다. 그런데 귀양지에서 풀려난 추사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다시 대흥사에 들려 “옛날 내가 귀양길에 떼어내라고 했던 원교의 현판이 아직 있으면 이것을 떼어내고 그것을 다시 걸어주게”하면서 “그때는 잘못 보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 다시 바뀌던 것이 지금 대웅보전에 있는 원교의 편액이다.

대흥사에는 초의선사가 만든 무염지라는 연못이 있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곳’이라는 뜻의 무염지(無染池)처럼 대흥사에서 세속에 찌든 마음을 말끔히 씻고 놀라고 아름다운 마음만 간직했으면 좋겠다.

#### 대흥사 가는 길

**승용차** 88고속도로 동광주(에서 빠져나와 1번 국도를 타고 나주에서 13번 국도를 따라 해남읍을 간다. 또는 남해고속도로와 목포광양간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순천(에서 빠져나와 해남에 도착한다. 해남읍에서 완도방면 13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읍내를 벗어나면 서 806번 지방도로로 바뀌어 탄 뒤 대흥사 방면으로 가면 된다.

#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절기, 동지

24절기 중 스무 두번째인 동지는 보통 양력 12월 22일 또는 23일에 든다. 동지는 일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지는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께 들면 '노동지' 라고 한다.

동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陰)이 극에 이르지만, 이 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는 의미로 아세(亞世)라고도 한다. 중국의 '역경(易經)'에는 태양의 시작을 동지로 보고 복괘(復卦)로 11월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주(周)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삼았다. 이러한 중국의 책력과 풍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또 옛 사람들은 동지를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작은 설'이라 하며 설 다음 가는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옛말에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 라는 말이 전하기도 한다.

중국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공공씨(共工氏)의 재주 없는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疫疾)귀신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생전에 팔을 두려워하여 팔죽을 쑤어 물리친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다분히 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로 팔죽의 축귀(逐鬼) 기능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동지팥죽은 절식이면서 동시에 벽사축귀(隻邪逐鬼)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팔은 붉은 색깔을 띠고 있어서 축사(逐邪)의 힘이 있는 것으로 믿어 역귀(疫鬼)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잡귀를 물리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의 어느 임금이란을 만나 피난을 가서 누가 시키는 대로 동짓날 백마의 피를 뿌려 제사를 지냈더니 난리를 무사히 피하게 되어, 그로부터 백마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후세에 와서 백마의 피 대신 핏빛 나는 팥죽을 쑤어 대신 쓰게 되었다고도 한다.

팥죽은 쑤어서 먹기도 하지만 문에 발라 잡귀를 쫓기도 하는데, 이것은 음(陰)이 극에 달하여 음성(陰性)인 귀신이 활동하기 좋을 때,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양(陽)의 기운으로

상징되는 붉은 색의 팥죽을 쑤어 상대적 강자로써 음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음양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팔은 붉은 색으로 '양(陽)'을 상징함으로써 '음(陰)'의 속성을 가지는 역귀나 잡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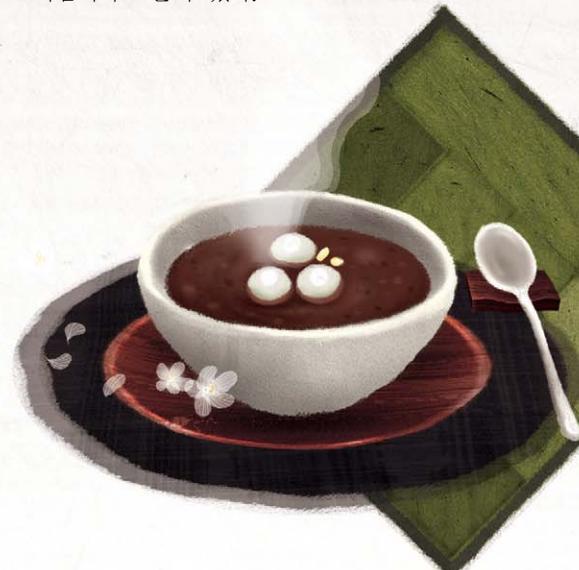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서는 팥죽을 쑤어 삼신·성주께 빌고, 모든 병을 막는다고 하여 솔잎으로 팥죽을 사방에 뿌린다. 팥죽을 솔가지에 적서 집안 대문을 비롯하여 담벽이나 마당에까지도 뿌리고 동구(洞口)에 있는 신목(神木)에도 금줄을 치고 팥죽을 뿌리는 것은 팥죽의 붉은 색으로 샷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 경기도 지방에서는 팥죽으로 사당에 차례를 지낸 후, 방을 비롯한 집안 여러 곳에 팥죽 한 그릇씩 떠놓기도 한다.

팥죽의 잡귀 쫓는 능력은 동짓날 외에도 쓰이게 되었다. 즉, 이사를 가거나 새집을 지었을 때 팥죽을 끓여 집안 구석구석이나 장독대에 뿌렸는데, 이것은 새집에 깃든 잡귀들을 쫓아 평안 무사하게 지내고자 함이었다. 불교에도 이러한 습속이 들어와 절을 새로 짓고 부처님을 모시는 점안 봉불의식을 봉행할 때, 팥죽을 쑤어 공양을 올리고 날팥을 뿌려 잡귀를 쫓는 의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확실한 유래와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한국 불교에서도 동지를 귀한 날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옛날 중국의 총림(叢林)에서는 동재라 하

여 절의 주지스님이나 일반 신도들이 대중을 위하여 공양을 베풀기도 하고 영가를 천도하기도 했다. 또 결하(結夏; 여름 결제), 해하(解夏; 여름 해제), 동지, 연조 등 총림의 4절 중 동지를 동년이라 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왔으며 동지의 전야를 동야(冬夜)라 하여 성대하게 치러 왔다고 한다. 또 동야에는 젊은 스님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일년 동안의 지도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지도를 바라는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동지에는 동지 팥죽과 더불어 책력을 선물하던 풍속이 전한다. 옛부터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라"고 했다. 전통사회에서는 단오가 가까워 오면 여름철이라 친지와 웃어른께 부채를 선물하였고, 또 동지가 되면 책력을 선사하는 풍속이 성하였다. 책력은 농경사회에서 생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생활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 법왕사 소식

## 계사년 동지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오는 12월 22일 계사년 동지를 앞두고 16일부터 7일간 동지맞이 기도를 봉행합니다.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어둠이 극에 달하고 다시 밝음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날이어서 양의 기운이 바야흐로 사생(始生)하는 절기입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이 날을 아세(亞歲), 즉 작은 설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절에서는 이날 팔죽을 쑤어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팔죽을 쑤고 법회를 봉행하며 내년도 새 달력도 배포할 예정이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계사년 동지 불공기도 입재 : 2013년 12월 16일,
- 회향 : 2013년 12월 22일, • 동참금 : 전가족 5만원입니다. 팔, 찹쌀공양 접수 받습니다.
- 설판축원 받습니다.

## 제25회 백고좌법회 49재 회향

지난 10월 21일 입재한 제25회 백고좌법회 49재가 여법하게 봉행 중이며 12월 8일 회향합니다. 이번 49재에는 2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조상영가와 선망부모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였는데 백고좌법회 회향 전일인 12월 8일 회향합니다.

## 내년 1월 16일, 제26회 백고좌법회 입재

법왕사 제26회 백고좌법회가 2014년 1월 16일부터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2014년도에는 1년에 3회의 백고좌법회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백고좌법회는 천일기도와 함께 입재하여 갑오년 한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여법하고 정성이 가득한 기도법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도 불명 보살계 수지법회, 삼사순례법회, 방생법회를 비롯해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많은 동참 바랍니다.

## 2014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 회향



2014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진 지난 11월 7일 고득점 기원 100일 기도, 21일 기도, 7일 기도를 회향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험생을 둔 학부모 50여분들이 동참하여 100일 동안 고득점을 기원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려 불보살님의 큰 가피를 입었습니다.

## 천일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새해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오는 2014년 1월 16일(음력 12월 16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1일(음력 9월 11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매일 보름날 오후 2시에는 화엄경 약찬게 49독 기도를 봉행하고, 천일법회 때마다 천주를 만들 30알의 염주를 드립니다. 천일기도비는 입재시 10만원, 매일 보름마다 30개월 동안 3만원씩입니다. 또한 천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에게는 천일기도 회향 기념수계를 드립니다.

## 법왕사 달마서숙 원생모집

법왕사에서는 절제와 정직으로 덕성을 함양하는 동양

# 법왕사 소식

의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품성을 고취시키고자 초, 중, 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용한자 1,200자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달마서숙을 개설합니다.

- 대상 : 초, 중, 고, 일반으로 수업과목은
- 초등부 : 부모은중경, 소학, 동몽선습, 천자문
- 중고등부 : 명심보감, 효경, 목민심서, 명상과 호흡
- 일반부 : 반야심경, 음양오행학, 불가의 자연건강학입니다. 각 부 강좌당 30명 선착순 모집이며, 전 과정 무료입니다.

## 신지원 법왕사 불자 사법고시 수석합격



법왕사 신지원 불자님이 올해 제55회 사법고시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306명 중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신불자님은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데 법왕사에서 늘 기도하며 불공을 올린 불자입니다.

## 18일, 10월 상달 산신대제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음력 10월을 맞이하여 봉당 뒤편 산신각에서 10월 상달 산신대제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대제에는 기도를 올린 불자들이 50여명이 동참하여 공양물을 갖추고 재를 올렸습니다. 산신대제는 대구의 명산이자 법왕사의 주산인 비슬산의 수호신상을 모시고 위무하는 재의식으로 무량한 공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4층 대적광전 천장공사 시작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천장공사가 착공 13년만인 11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부산 조은 불교에서 맡아서 하는데 19일 목재가 도착했고, 매일 5명이 투입되어 한 달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 제2해오름요양원 부지 1천여평 매입

법왕사에서는 제2해오름요양원 및 병원 건립 부지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일대 1천여평을 매입키로 하고 11월 21일 오후 2시 법왕사에서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한가족 한평불사를 통해 건립 자금을 확보한 다음 부지 정지공사를 해서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적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운불련 정기법회 19일 봉행

운불련 정기법회가 11월 19일 오후 2시 350여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복지관 3층 대법당에서 주지 실상스님의 법문으로 열렸습니다. 법문에 앞서 매월 해오름요양원에서 위문공연을 주관하신 박성권 거사가 이끄는 참사랑문화봉사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 12월 13일 해오름요양원 후원가족의 밤 열려

오는 12월 13일(금) 저녁 7시 복지관 지하 공방에서 해오름요양원 후원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 법왕사 소식

해오름요양원에 후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요양원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 후원가족 여러분의 빠짐없는 동참 바랍니다.

## 본당 석불전 내부 공사 마무리



본당 석불전 공사가 11월 16일 마무리되어 참선과 문화강좌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여 30여평의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였으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화교실 서각강좌 수시로 열려



신임선 선생님이 지도하는 문화교실 서각강좌가 본당 1층에서 수시로 열립니다. 글씨와 그림을 조각하는 서각은 취미생활은 물론 경전공부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BBS TV, 백고좌법회 녹화 방영

BBS 불교TV에서 11월 중에 백고좌법회 장면을 녹화, 45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매일 5회 방영합니다.

법회를 촬영한 법사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 촬영 법사님 명단

- 11월 1일(62일차) 도암스님(송광사 강주)
- 11월 2일(63일차) 변윤스님(토굴정진)
- 11월 3일(64일차) 영일스님
- 11월 4일(65일차) 덕문스님(통도사 울원장)
- 11월 8일(69일차) 원순스님(송광사 인월암)
- 11월 12일(73일차) 정인스님(창원 중앙승가대 교수)
- 11월 13일(74일차) 광옥스님(아미타선원장)
- 11월 16일(77일차) 영석스님(동국대 교수)
- 11월 17일(78일차) 덕진스님(울산 정토사)
- 11월 21일(82일차) 시명스님(부산 청은정사 주지)
- 11월 22일(83일차) 세준스님(동국대 교수)
- 11월 27일(88일차) 정엄스님(군포 정각사 주지)
- 11월 28일(89일차) 보각스님(김포 중앙승가대 교수)
- 12월 1일(92일차) 일귀스님(순천 송광사 강주)
- 12월 2일(93일차) 주경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 12월 6일(97일차) 일진스님(청도 운문사 주지)

### • 도암스님 방송시간

- 11월 27일(수) 밤 11시
- 11월 28일(목) 오후 5시
- 11월 29일(금) 오전 9시
- 11월 30일(토) 오전 7시

## 현대불교음악가 야운, 새 음반 보시



현대불교음악가 야운이 새로 출반한 음반 '산술바람' CD 2백개를 보시하였습니다. 이 음반에는 법화경을 주제로 만든 곡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를 비롯해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법왕사 게시판

## 사보 도움 주신 분

- 우성주택건설(주) 권오성 300부
- 해인승가대학장 해월 큰스님 300부
- 보현암 선진스님 200부 관암스님 300부
- 윤결불심 500부 선용스님 3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 법보시하신 분

한운상기영가 법요집 20권

## 후원 하신 분

- 해오름요양원 후원
  - 최운순 문정자 강숙영 이희은 황상욱
  - 김형택 임승현 권영희 박병준
- 해오름요양원 · 병원 한가족 한평불사
  - 김정숙 양창구 10만원 박상익 10만원
  - 우포정사 영범스님 100만원 정춘화 10만원
  - 김일만(CMS) 정민수 100만원
- 천일기도 올리신 분
  - 김민지 박정희 권무길 박종연 김유창
  - 이경란 신천식 조준성 권숙자
- 삼존불 봉안 후원 하신 분
  - 심규암 심혜정 최재훈 오창혁
- 10월 상달 산신기도 축원
  - 허성빈 이효조 이운섭 임석빈 안영희
  - 이진주 신채원 이우영 신윤지 이상은
  - 박상원 김상한 백용길 이정옥 권혁일
  - 김혜숙 김다솔 김단비 김병찬 박동근
  - 정인순 김중환 김영애 권영희 정 돈
  - 전숙환 권영희 조영부 시명기 정광훈
  - 김옥희 이상열 전정광 손정열 최재훈
  - 안준영 이희로 권우안 김상수 김순태
  - 정재욱 김병찬 박동근 조동선 유용재
  - 김우영 안영희 정재욱 이승재 서미경
  - 김성훈 김순태 정재욱 손정열 안준영
  - 권정화 권영희 시명기 이진주 최재훈
  - 김다솔 강유미 류윤만 하경영 양혜영
  - 박영승

## ◉ 석불전 도움 주신 분

류윤만 10만원 양혜영 10만원

## 공양 올리신 분

### ◉ 돼지저금통 회향

이지송 29,400원 여택동 5,500원

### ◉ 떡공양

강동환	권혁일	신범해	이상욱	이재학
김정운	신용원	백승렬	안영진	신채림

### ◉ 과일공양

양혜영	굴 1상자	백성수	5만원
한전정숙	5만원	김호연	10만원

### ◉ 공양미

남경탁 40kg	김종황 10kg	한박유생 20kg
여준엽 20kg	심보현 20kg	김임태 20kg
서미희 20kg	정민우 20kg	이창현 20kg

### ◉ 대중공양

안준영 12만원 신장희 참기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 보시해 주신 분

- ◆ 법하스님께서 구구마 1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 ◆ 세광하이테크에서 10월 초하루 백고좌 2재 과일공양 일체를 공양해 주셨습니다.
- ◆ 여택동 법우님께서 액자, 병풍, 카페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 ◆ 채태수 법우님께서 배추 200포기를 공양해 주셨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 ◆ 전관음회 회장 윤건불심 보살님의 막내 김운주양의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 ◆ 김중수 · 신미숙님의 장녀 연화양의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 ◆ 정왕국 · 이재순님의 장남 동식군과 강순용 · 김경자의 장녀 지영양의 결혼식을 축하드립니다.

## 왕생극락하옵소서

- ◆ 김민주 법우님의 시범부 윤상기 영가님의 막제가

- 11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정지은 법우님의 남편 김준용 영가님의 막제가 1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김광현 법우님의 자모 김태선 영가님의 기제사가 11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정윤창 법우님의 엄부 정현수 영가님의 기제사가 11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최윤주 법우님의 동생 최규석 영가님의 기제사가 11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이은주 법우님의 자모 성석금 영가님의 기제사가 1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문충덕 법우님의 자모 나영자 영가님의 기제사가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 ◆ 김수현 법우님의 자모유인 김해김씨 순흥 영가님의 기제사 축원이 있었습니다.
  - ◆ 박순지 법우님의 가부 이재식 영가님의 기제사가

- 11월 25일에 있었습니다.
- ◆ 홍승규 불자님의 자모 정분례 영가님의 초제가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행사

서각인협회 모임이 11월 9일, 1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 법왕사 계좌번호

-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 격조 높은 동양 고전 법왕사 달마서숙 강좌

법왕사에서는 절제와 정직으로 덕성을 함양하는 동양의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품성을 고취시키고자 초, 중, 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용한자 1,200자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달마서숙을 개설합니다.

**대상** 초, 중, 고, 일반

### 수업 과 목

- 초 등 부 : 부모은중경, 소학, 동몽선습, 천자문, 고사성어 및 속어 등 다수
- 중고등부 : 수심결, 명심보감, 수타니파타, 효경, 목민심서, 명상과 호흡, 범구경 등 다수
- 일 반 부 : 반야심경, 채근담, 심우도, 음양오행학, 불가의 자연건강학, 도덕경, 발심수행장, 육조단경 등 다수

### 과정 및 시간

- 초 등 부 : 1년 매주 1회(수) 오후 3시
- 중고등부 : 1년 매주 1회(월) 오후 3시
- 일 반 부 : 1년 매주 1회(토) 오후 3시
- ※ 각 부 강좌당 30명 청학순 접수(내사), 전 과정 무료

### 강 사

본원스님

한양대 공대 졸업 / 80년 정무스님 은사출가 / 지리산 청학동 6년 주역연구



## 해오름 소식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주위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사랑봉사단

참사랑봉사단에서 정기공연으로 요양원 어르신들의 마음을 후끈 달아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요양원 공연에 윤블린 법회까지 중흥무진 활약하신 공연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녹색환경봉사단

요양원 봉사단 중 제일 많은 인원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계신 녹색환경봉사단(단장 : 문태영)의 사랑 나눔 행사로 요양원이 풍성해진 하루였습니다.



### 김명희놀이치료

매주 금요일 김명희 자원봉사자의 놀이치료 시간은 어르신들의 집중도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열중하시는 모습이 학생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 휠체어 후원

후원해 주신 휠체어는 어르신들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따뜻한 마음 나누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후원 · 후원물품 ·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를 기다립니다.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0월)

◎ 수입내역		
박연경 1만원	문정애 2만원	김기덕 2만원
진봉희 1만원	노귀자 5천원	이임숙 2만원
이길영 1만원	이정옥 1만원	박귀분 1만원
김주희 5천원	정무시 1만원	권명원 1만원
신입선 5천원	김정임 1만원	홍유식 5천원
김승환 5천원	권숙자 1만원	박순영 5천원
김예분 1만원	현영희 1만원	임익균 1만원
박정숙 1만원	현인숙 1만원	곽순복 2만원
이호동 5천원	강영도 2만원	강선옥 1만원
이정훈 1만원	김진성 1만원	최경순 1만원
심규암 5천원	심중순 5천원	권봉자 3만원
김정자 5천원	한규매 5천원	성외련 2만원
김기수 2만원	정연이 5천원	고연숙 1만원
구정대 2만원	이인순 5천원	정활수 3만원
김순태 1만원	김봉숙 5천원	임상덕 1만원
김민주 1만원	오난옥 5천원	김임태 5천원
이길영 1만원	이점례 1만원	정시영 1만원
정금용 1만원	이병희 1만원	권보형 2만원
홍유식 5천원	김순란 3만원	조규인 1만원
윤광숙 5천원	신구자 5천원	사공관 1만원
김원형 3만원	조영석 1만원	이점례 1만원
고선영 2만원	김정희 1만원	이성자 5천원
김승환 1만5천원	윤순희 1만원	채옥연 5천원
박명숙 1만원	김미옥 2만원	배수현 2만원
최복례 1만원	김수라 1만원	신돈식 1만원
정활수 3만원	최분규 1만원	여택동 5천원
오금옥 1만원	양나영 5천원	이종희 5천원
박대희 5천원	정광춘 5만원	안경순 1만원
이남희 1만원	신혜경 5천원	장인숙 5천원
안상준 2만원	류윤만 1만원	권오성 1만원
박학순 1만원	인명희 1만원	강심규 5천원
강소남 5천원	황미선 2만원	박태숙 5천원
조용수 2만원	노수정 1만원	박창목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관계화 1만원	이현우 1만원
김유진 1만원	장우성 1만원	이은주 1만원
유명옥 1만원	김정순 3만원	이강복 1만원
이은희 5천원	우포정사 1만원	

합계 1,245,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554,450원
- 쌀 구입	255,000원
- 나들이 외식비	78,000원
- 약품구입	50,900원
- 헤어드라이기 구입	30,000원
- 어르신 간식 구입	142,520원
- 프로그램용 꽃 구입	150,000원

10월 총 사용내역 1,328,87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신 분

김현정 보살 : 휠체어 5대(130만원 상당)
김민지 보살 : 소고기 40만원 상당
정장분 어르신 보호자 : 단감 1box
김용희 어르신 보호자 : 통닭 1마리
지영달 어르신 보호자 : 계란 30개 1판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40개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20개, 통닭 1마리
차수학 어르신 보호자 : 밀감 5kg, 바나나 2손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야구르트 30개, 현금 10만원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불가리스 15병, 꿀 1box, 두유 1box
박정록 어르신 보호자 : 현금 2만원
장태순 어르신 보호자 : 단감 20개
무진 비구니 법사스님 : 사탕 8봉지
최상옥 · 김태희 실습생 : 롤케익 5개, 요구르트 15개
박해숙 간호팀장 : 현금 5만원
장어와 미꾸라지 : 추어탕 40인분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봉사활동 하신 분

김명지 외 7명(수성대학교 간호과 학생)
박경혜(성덕대학 학생)

김명희(매주 금요일 놀이치료)  
녹색봉사단 20명(매월 3째주)  
참사랑공연단(매월 1회)

##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범혜순  
사회복지사 : 임승현

## 축하합니다!!

- 11월 9일 김정희 요양보호사 장녀 결혼
- 11월 15일 박해숙 간호팀장 장남 국민은행 채용 최종합격

## 요양원 직원 동향

- 11월 4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전 직원
- 11월 12일 재무회계교육 참석 : 임승현 사회복지사
- 11월 21일 재무회계교육 참석 : 강선옥 사무국장

##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 후원안내

-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 CMS자동이체 후원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와 5,000원부테)

## 제2해오름요양원 ·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봉사

법원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찬하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원사는 제2해오름 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립니다)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원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원사

# 선서화 및 서각 전시회와 함께 하는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후원의 밤

초대합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법왕사 해오름요양원에 보내주신 끊임없는 사랑과 따뜻한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감사의 의미로 작은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제1회 해오름요양원 후원의 밤」에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오후 7시

장 소 | 법왕사 내 복지관 지하 1층

주 최 | 법왕사

주 관 | 해오름요양원

## 제2해오름요양원 · 요양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봉사

동참금 |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3년 분납 가능)

문의 | 종무소(766-3747, 766-9088)

동참계좌 | 대우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 ●● 동참하고 계신 분(11월말 기준)

김수열 5백만원	전지혜 1백만원	노태경 20만원
박상익 10만원	김정국 4백만원	정영웅 1백만원
김의환 24만원	최민우 1백만원	정춘화 10만원
손대천 30만원	이재왕 1백만원	유창성 7만원
권혁일 5만원	오광진 3백만원	동원토건 10만원
문원미 1백만원	권오삼 1백만원	이강복 20만원
강선옥 10만원	박성호 2백만원	박해숙 1백만원
송재호 1백만원	자윤스님 20만원	



요양원 후원전용 CMS자동이체 가입 신청 받습니다.  
1구좌 5,000원부터(신청서 작성 : 요양원, 종무소 문의)

##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 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오는 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산터널 개통으로 범물동에서 법왕사까지 7분, 상인동 터널 입구에서 법왕사까지는 11분으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화엄신중 천일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새해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오는 2014년 1월 16일(음력 12월 16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1일(음력 9월 11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매월 보름날 오후 2시에는 화엄경 약찬게 49독 기도를 봉행하고, 천일법회 때마다 천주를 만들 30알의 염주를 드립니다. 천일기도비는 입재시 10만원, 매월 보름마다 30개월 동안 3만원씩입니다. 또한 천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에게는 천일기도 회향 기념수계를 드립니다.

## ◎ 천일의 발원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이니라,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와 같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자경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몸 낮추는 계절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초발심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불국토의 바다에  
편히 앉게 되나니 이를 일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걸음, 걸음들이 더디기만 하여 급한 마음밭에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탐욕심이 지은 업으로 뒤틀려 어긋나 악연의 고리에 걸려 든  
인연들이 자재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어긋남의  
고리를 끊고 선한 인연되어 화락하게 하옵기를 발원합니다.

여기, 법왕사 불자들이 천일의 눈을 세웠습니다.  
신심깊은 불자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 천일의 눈이  
완성되는 날 소구소원하신 모든 발원이 성취되어  
너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우리 모두 관세음 되게 하여 지이다.



##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6일 목요일 (음 12월 16일)
- 회 향 :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음 9월 11일)
- 천일법회 : 매월 보름 오후 2시 화엄경 약찬게 49독 기도
- 천일염주 : 매월 보름마다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계사년 동지맞이 (02시 10분) 동지 7일간 불공기도

법왕사에서는 오는 12월 22일 계사년 동지를 앞두고 16일부터 7일간 동지맞이 기도를 봉행합니다.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어둠이 극에 달하고 다시 밝음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날이어서 양의 기운이 바야흐로 시생(始生)하는 절기입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이 날을 아세(亞歲), 즉 작은 설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절에서는 이날 팔죽을 쑤어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팔죽을 쑤고 법회를 봉행하며 내년도 새 달력도 배포할 예정이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입 재 2013년 12월 16일(월)
- ❁ 회 향 2013년 12월 22일(일) ] 7일간
- ❁ 기 도 매일 오전 9시 30분
- ❁ 동참금 전가족 5만원입니다

- ※ 동짓날 새해 달력을 배포합니다.
- ※ 팔, 찹쌀공양 접수 받습니다.



## 동지회향 방생법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12월 22일 동지불공 7일 기도를 회향하고 그 이튿날인 23일 부산 태종대, 오륙도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합니다.

- ❁ 일 시 2012년 12월 23일(월)
- ❁ 장 소 부산 태종대, 오륙도
- ❁ 출 발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
- ❁ 동참금 4만원

※ 점심은 시중에서 준비합니다. ※ 방생물은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2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제25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97일차  
12월 6일  
특별 법문  
일진스님  
청도 운문사 주지



●99일차  
12월 8일  
특별 법문  
마가스님  
서울 미타정사 주지



●100일차  
12월 9일  
불명수지  
보살계 수계 법회  
혜능스님  
전 해인사 울원장

◆ 일시 : 2013년 9월 1일 ~ 12월 9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법사명단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92일차	12월 1일 回	일귀스님	순천 송광사 강주	97일차	12월 6일 窟	일진스님	청도 운문사 주지
93일차	12월 2일 回	주경스님	충남 서산 부석사 주지	98일차	12월 7일 回	지우스님	대구 보현사 주지 (동화사 포교당)
94일차	12월 3일 回	실상스님	대구 법왕사 주지	99일차	12월 8일 回	마가스님	서울 미타정사 주지
95일차	12월 4일 回	무관스님	합천해인사승가대학 전강주	100일차	12월 9일 回	혜능스님	김천 직지사승가대학장
96일차	12월 5일 回	수월스님	서울 극락사 주지				

## 2014년 백고좌 대법회

제26회 백고좌 입재 : 2014년 1월 16일(목) 음 12월 16일(입재법문, 도법스님)

회향 : 2014년 4월 25일(금) 음 3월 26일

제27회 백고좌 입재 : 2014년 5월 13일(화) 음 4월 15일(하안거 결재)

회향 : 2014년 8월 20일(수) 음 7월 25일

제28회 백고좌 입재 : 2014년 9월 14일(일) 음 8월 21일

회향 : 2014년 12월 22일(월) 음 11월 1일(동지)



도법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s.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